

『삼국사기』의 박혁거세신화

—신라의 세계관과 우산국—*

권오엽**

目次

- 1 서
 - 2 박혁거세 신화
 - (1) 천과 무관한 신화
 - (2) 신화의 시간과 공간
 - 3 신라왕조와 천
 - (1) 신궁의 제신
 - (2) 국호와 왕호
 - 4 신라의 사방의식
 - (1) 서방 (2) 남방 (3) 북방 (4) 동방 (5) 동방으로서의 우산국
 - 5 결론
-

1 서

박혁거세를 천신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그러나 그것은 『삼국유사』라면 몰라도 『삼국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다. 『삼국유사』는 천과 연계하여 박혁거세를 이야기하나 『삼국사기』는 그렇지 않다. 박혁거세의 출처를 언급하지 않는 것이 『삼국사기』다. 고구려의 해모수나 백제의 온조는 천과 연계시켜 이야기하면서 박혁거세만은 천과 유리시키고 있는 것은 어찌 된 일일까.

* 본 논문은 2004년도 충남대학교 학술연구비를 받은 논문임.

** 충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일본고전문학

처음부터 천과 무관한 박혁거세였을까. 아니면 기록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일까. 그 가능성은 어찌되었던 천에 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박혁거세를 천과 연계시키는 것은 『삼국사기』의 의도에 어긋나는 일이라 하겠다. 물론 『삼국유사』의 그것과 유사한 내용이니, 그것을 근거로 천손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 또한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단순한 누락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확인해 보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려시대에 김부식을 비롯한 11명에 의해 편찬된 기록물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신라인들이 소유했던 신화가 그대로 기록되지 않고, 편찬자들의 의도에 따라 윤색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윤색의 경우, 기록상의 누락의 경우도 상정할 수 있으나, 문제는 의도된 생략이나 윤색의 경우로, 그럴 경우 그 의도는 충분히 규명되어야 할 문제다.

만일 편찬의도에 따라 신화에서 천과의 관계가 생략되었다면, 그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신라의 세계관적인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시조가 천과 혈연관계를 갖는다면, 신라는 자국은 천하의 중심에 위치시키는 천하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박혁거세가 천손이라면, 신라는 박혁거세를 매개로 천과의 혈연을 보장받아, 천하를 주재하는 정통성을 확보하고, 신라는 자연적으로 천하의 중심에 위치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자국의 절대적 권위를 보장받아 천하의 중심에 위치할 수 있는 것이, 시조의 천과의 혈연인데, 신라인 스스로가 그것을 부정하고 있었을 것인지, 그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면 박혁거세가 천과 유리되어 이야기된 것을, 편찬시의 윤색의 결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신라왕조와 천의 관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일이다. 신화 이외의 내용이 천과 연계되어 있다면, 신화도 처음부터 천과 무관하지 않았다는 것이 된다.

왕조와 천과의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많으나, 왕조의 제신을 살펴보는 것도 박혁거세와 천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좋은 방법이다. 신라는 박혁거세의 탄강지에 신궁을 세우고 제사했는데, 그 신궁의 제신이 천신이었다. 신궁이 천신을 제사하는 곳이고, 신궁의 설립지가 박혁거세의 탄강지였다는 것은, 박혁거세가 천신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그것을 근거로 왕조와 천과의 혈연적 관계는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신라가 천과의 혈연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천하사상을 구축하고 있었다는 경우도 상정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되면 천과 무관하게 이야기된 『삼국사기』의 박혁거세의 신화는 신라인들이 소유했었던 것이 아니라, 편찬자들에 의해 개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삼국사기』의 신화 이외의 기록에는 천과 연계된 내용이 많다. 신궁의 제신만이 아니라 여러 사실적인 기록이 천재지변과 연계되어 있다. 또 신라를 세계의 중심으로 여기는 용자의 사용도 적지 않다. 이처럼 천과 연계된 내용이나 독자적인 천하를 연상할 수 있는 용자법이 있다는 것은, 신라 왕조는 천과의 혈연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신라는 지리적으로도 사방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사방과 동의어인 천하를 의식하고, 자국을 그 중심으로 여기고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실질적으로 신라의 인접국과의 교류 내용을 보면 자타를 구별하는 화이사상에 근거하는 교류, 왕으로 구별된 주변세력을 포섭하려는 왕화사상을 실현하려는 교류 등이 보인다. 즉 신라는 천하사상을 구축하고 인접국과 교류를 통해서 그것을 실현하고 있었던 것이다. 신라가 국가인 이상 자존하는 독자의식은 가졌기 마련이다. 그렇지 않고는 국가로 존재하는 의미를 설명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도 시조와 천과의 관계는 재고되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삼국사기』가 한계를 노출하며, 천의 관계를 노출하고 있는 내용들을 통하여, 박혁거세와 천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것을 근거로 신라의 독자적인 천하를 확인하기로 한다.

2 박혁거세 신화

(1) 천과 무관한 신화

『삼국사기』에는 육촌장·박혁거세·알영·석탈해·김알지 등의 신화가 전하는데, 육촌장·박혁거세·알영 신화가 합쳐져서 신라의 건국신화가 되었고, 석탈해·김알지 신화는 성씨·시조신화이면서 왕권과 관련을 가지기 때문에, 신라 왕권신화의 성격을 파악하거나 시조신화와 왕권신화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¹⁾. 그 중에서 박혁거세 신화를 통하여 신라 왕조와 천과의 관계를 확인해보기로 한다.

1) 서대석 『한국신화의 연구』 (집문당, 한국, 2001, 7), P.97.

시조의 성은 박씨, 휘는 혁거세이다. 진한 효선제 오봉 원년 갑자 4월 병진 날(혹은 정월 15일이라고도 함)에 즉위하여 왕호를 거서간이라 하고, 그 때 나이는 13세, 국호는 서나벌이라 하였다.

일찍이 조선의 유민들이 이곳에 와서 산곡간에 헤어져 여섯 촌락을 이루었다. 첫째는 알천의 양산촌, 둘째는 돌산의 고허촌, 셋째는 취산의 진지촌(혹은 우진촌), 넷째는 무산의 대수촌, 다섯째는 금산의 가리촌, 여섯째는 명활산의 고야촌이란 것이나, 이것이 진한의 육부이었다. 고허촌장인 소벌공이 하루는 양산 및 나정 곁에 있는 숲 사이를 바라 본 즉, 말이 무릎을 꿇고 울고 있으므로 가보니 말은 간 데 없고, 다만 있는 것은 큰 알 뿐이었다. 알을 깨어 본 즉 한 어린아이가 나왔다. 곧 소벌공이 데려다가 길렀더니, 나이 10여 세가 되니 유달리(숫아나개) 숙성하였다. 6부 사람들은 그 아이의 출생이 이상하였던 까닭에 높이 받들더니, 이때에 이르러 그를 세워 임금을 삼았다²⁾.

그 어디에도 「천」이라는 표현, 「천」과 연계시킬만한 표현이 없다. 그럼에도 「천신족과 지신족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³⁾, 「천신족으로서의 유이민인 박씨 부족은 경주 양산하, 지신족으로 토착족인 김부족은 알천변, 토함산과 연결된 석부족은 동해안에 거주지를 갖고 있었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는 견해가 될 수 있다」⁴⁾라는 식으로, 천과 연관되어 설명되고 있다.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삼국유사』는 박혁거세만이 아니라, 「처음에 하늘에서 표암봉에 내려왔으니」·「처음에 형산에 내려왔으니」·「처음에 이산에 내려왔으니」·「처음에 화산에 내려왔으니」·「처음에 이산에 내려왔으니」·「처음에 명활산에 내려왔으니」·「처음에 금강산에 내려왔으니」⁵⁾라는 「강… 봉

2) 始祖, 姓朴氏, 諱赫居世, 前漢孝宣帝五鳳元年甲子, 四月丙辰(一曰正月十五日), 即位, 号居西干, 時年十三, 国号徐那伐, 先是, 朝鮮流民, 分居山谷之間 為, 一曰闕川楊山村, 二曰突山高墟村, 三曰鶻山珍支村(或云于, 珍村), 四曰茂山大樹村, 五曰金山加利村, 六曰明活山 是為辰韓六部, 高墟村長, 望楊山麓, 蘿井傍林間, 有馬跪而嘶, 則往觀之, 忽不見馬 只有大卵 剖之 有嬰兒出焉, 則収而養之, 及年十余歲, 岐嶷然夙成, 六部人, 以其生神異 推尊之 至是 立為君焉 辰人為鶻為朴, 以初大卵如鶻故, 以朴為姓, 居西干, 辰言王(或云呼貴人之稱)(李丙燾 訳註『三国史記』卷第一 新羅本紀 第一, 乙酉文化社, 한국, 1996년 12월), 이하의 인용은 동서에 의함.

3) 金杜珍 「加耶와 新羅의 神聖族神話」(한국, 一潮閣, 『韓國古代의 建国神話와 祭儀』, 1999.) P.264.

4) 金哲竣 「新羅上代社會의 dual organization」上(한국, 『歷史學報』1, 1952), PP.23-25.

5) 初降于瓢崑峰, 是為及梁部李氏祖…初降于兄山, 是為沙梁部鄭氏祖…初降于伊山, 是為漸梁部, 又牟梁部孫氏祖…初降于花山, 是為本彼部崔氏祖…初降于明活山 是為漢岐部 又作韓岐部 裴氏祖(一然저 李民樹역 『三国遺事』, 乙酉文化社, 1985년 9월).

(降…峰) 「강…산(降…山)」의 형식을 취하여 6촌장으로 존재하는 조선 유민까지도 천손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곳의 「강…봉」, 「강…산」은 그 선조들이 봉(峰)이나 산(山)보다 높은 곳, 즉 천에서 내려왔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표현으로, 6촌장의 선조가 천신이고, 그 혈통을 계승한 천손들이 지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삼국유사』는 박혁거세의 경우에도, 「빈개 빛처럼 이상한 기운이 땅에 닿도록 비치고 있다…말이 사람을 보더니 길게 울고는 하늘로 올라가버렸다」⁶⁾ 라며, 「이기여전광수지(異氣如電光垂地)·「마견인장사상천(馬見人長嘶上天)」의 「수지」·「상천」 등의 용자로 박혁거세와 말이 위에서 아래, 즉 천지간을 왕래한 사실을 통하여, 천과의 혈연관계를 시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삼국사기』에는 그러한 내용의 기록이 없는 것이다. 것처럼 천과의 관계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신라의 시간과 공간도 한정적인 것이 되고 만다.

(2) 신화의 시간과 공간

천과 유리된 박혁거세 신화의 시간과 공간은 지극히 사실적이라, 신화라기보다 사실의 기록이라 말할 정도로 사실적이고, 또 그것들은 역사적 시간으로 확인되기도 한다. 박혁거세가 13세인 「전한 효선제 오봉 원년(기원전 57년)에 즉위」했으니, 그는 기원전 80년에 태어났으며, 그곳에는 이미 조선유민들이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다. 그래서 신화적 박혁거세는 역사적 시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 이 같은 시간의 한계는 주인공에게 실존성을 부여하여 신성성을 반감시키는데, 이 같은 사실적 시간은 알영은 물론 계보를 계승하는 석탈해·김알지 등의 시간까지 한정하여, 그들은 박혁거세의 시간을 초월 할 수가 없다.

이는 중국의 시간을 기준으로 삼는 것에 의한 한계로, 신라를 중국의 세계상 속에 위치시키고 만다. 즉 독자적인 세계가 아니라 중국의 세계상에 신라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신라의 신화의 시간마저 중국의 그것에 위치시

6) 前漢地節元年壬子(古本云, 建虎元年. 又云, 建元三年等. 皆誤) 三月朔, 六部祖各率子弟, 俱會於闕川岸上. 議曰. 我輩上無君主臨理蒸民. 民皆放逸. 自從所欲. 盍覓有德人, 爲之君主, 立邦設都乎. 於是乘高南望. 楊山下蘿井傍, 異氣如電光垂地. 有一白馬跪拜之狀. 審檢之. 有一紫卵(一云青大卵). 馬見人長嘶上天. 剖其卵得童男. 形儀端美. 驚異之. 俗(浴)於東泉(東泉寺在詞腦野北). 身生光彩. 鳥獸率舞. 天地振動. 日月清明. 人名赫居世王(李民樹譯『三國遺事』, 한국, 乙酉文化社, 1985), P.67).

키게 된다. 사실적으로 보면, 신라 이전에 여러 나라가 존재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하는 것이 당연하고 합리적일지도 모른다.

그렇다 해서 모든 신화가 역사적 시간에 설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실제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다. 광개토왕비문이 이야기하는 고구려의 건국신화가 그 좋은 예이다. 그것은 신화적인 시간을 「석(昔)」으로 설정하는 방법으로, 천신과 지신의 신혼이나, 그 결과로 천자가 난생하는 시기를 신화적 시간에 위치시키고 있다. 비문은 그 「석」이라는 신화적인 애매한 시간으로, 고구려의 건국을 천제가 주재하는 시간에 이루어진 일로 설정하여, 건국의 시간을 한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고구려를 지상 최초의 국가, 천하의 중심에 위치시키고 있다⁷⁾

그런데도 『삼국사기』는 같은 내용을 「한의 효원제 건소 2년, 박혁거세 21년인 갑신년에 졸본에 고구려를 건국한」 것으로 하여, 고구려를 역사적인 시간에 위치시키고 있다. 같은 내용을 이야기함에 있어 『삼국사기』는 그 시간을 역사적으로 한정하는 것에 반해 비문은 시간을 한정하지 않았다. 것처럼 『삼국사기』는 신화를 역사적 시간에 위치시키려 했다. 그러한 의도에 의한 결과가 박혁거세신화의 시간일 것이다.

공간의 문제도 그렇다. 박혁거세의 출처가 확실하지 않고, 천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의 활동 범위와 더불어 신라의 공간도 천을 제외한 지상으로 한정된다. 그것이 바다를 포함하는 것은 박혁거세의 신화가 아니라 석탈해 신화를 통해서다. 박혁거세의 출처가 불명이고, 김알지의 출현지가 「금성 서편 시림 숲」 이어서, 지상으로 한정되는 공간은 석탈해의 신화를 통하여, 신라의 동쪽 바다 건너에 있는 이계까지 확장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삼국사기』나 비문이 이야기하는 고구려의 공간과는 크게 다르다. 『삼국사기』가 이야기하는 고구려의 공간은 해모수를 천자의 아들로 설정하는 방법으로, 해모수가 천지간을 왕복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천지간을 그 공간으로 한다. 「비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비문은 천제와 하백여랑의 신혼, 강세와 승천 등을 통하여 천지간을 고구려의 공간에 포함시키고 왕조와 천제의 혈연적 관계를 보장하고 있다.

비문의 경우는 기록의 시기와 기록자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이

7) 惟昔始祖鄒牟王之創基也出自北夫余天帝之子母河伯女郎剖卵降世生而有聖□□□□□□命駕巡幸南下路由夫余奄利大水王臨津言曰我是皇天之子母河伯女郎鄒牟王為我連葭浮龜應聲即為連葭浮龜然後造渡於沸流谷忽本西城山上而建都焉 「광개토왕비문 제 1면 제 1행 1자-29 자」

야기하는 시간이나 공간이 다를 수 있고 그것이 당연하다 할 수 있으나, 같은 『삼국사기』가 고구려의 공간은 지상으로 한정하지 않으면서 신라의 공간을 한정시키고 있는 것은 다르다. 그것은 우연이라기보다는 의도된 결과로 보아야 할 일이다. 시간과 공간을 한정할 목적으로 박혁거세를 천과 유리시킨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일이다. 그렇게 해서 사실성을 확보하려 했는지도 모른다.

신화의 사실성을 강조하거나, 시간과 공간을 한정하는 것은, 신화와 사실적 기록이 접촉하는 의미를 상실시키고 만다. 원래 신화와 사실을 접촉하는 것은 신화와 역사적 사실을 대응시켜 그것들을 동질화하여 신화는 역사적 사실에 신성성이나 정통성 등을 부여하고 역사적 사실은 신화에 사실성을 보장하게 된다. 그런 면에서 신화와 역사적 사실의 접촉은 의미를 가지며 그것이 조상을 신격화하고 천과의 혈통을 보장하게 된다. 그러함에도 『삼국사기』가 시조와 천과의 관계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신화로 보장받을 수 있는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된다. 만일 고려인이 아닌 신라인에 의해 편찬된 기록이라면 이것과는 다른 내용이었을 것이다. 적어도 『삼국유사』 정도의 관계는 언급하였을 것이다. 그것은 신화 이외의 기록이 천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통해 확인되는 일이다.

3 신라왕조와 천

(1) 신궁의 제신

신라왕조의 제사는 시조묘 신궁 등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제신에 대해서는 제설이 제기되고 있었다. 『삼국사기』가 전하는 신라의 제사의례는 다음과 같다.

살피 보건데 신라 종묘의 제도는, 제 2대 남해왕 3년에 비로소 시조 박혁거세의 사당을 세워 사시로 제사하고, 친누이 아로로씨 제사를 맡게 하였으며, 제 22대 지증왕때에는시조 탄강의 땅인 내올에 신궁을 창립하고 제향하였다⁸⁾.

9년 2월에 내올에 신궁을 지으니, 내올은 시조가 처음 탄생한 곳이었다. (중략) 17년 정월에 왕이 친히 신궁을 제사하였다⁹⁾.

8) 按新羅宗廟之制 第二代南解王三年春始立始祖赫居世墓 四時祭之 以親妹阿老主祭 第二十二代智証王, 於始祖誕降之地奈乙, 創立神宮以享之(『三國史記』 32, 雜志1, 祭祀條).

시조묘와 신궁에 관한 내용으로 왕조와 천과의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기록이다. 시조묘가 박혁거세를 제신으로 한다는 것은 자체설명으로 알 수 있는 일이나, 신궁의 제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설명은 없어 확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제설이 제기되어 있다. 특히 신궁의 기록은 소지왕조와 지증왕조에 중복적으로 기술되어 의아심을 가지게 하기도 한다. 두 기록은 기록된 시대나 『삼국사기』 편집순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내용이 유사하여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신궁의 제신에 대해서는 그 건립지가 박혁거세의 탄강지라는 것을 근거로 박혁거세가 제신이라는 설, 내물왕 이후의 김씨왕조를 근거로 김씨계의 왕이 제신이라는 설 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들이 시조묘와 신궁이 공존하는 사실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직시하고 「신궁의 주신은 자연히 천지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¹⁰⁾고 제기한 최광식의 의견이 논리적이다. 이처럼 신궁의 주신이 천신이고 박혁거세가 탄강한 곳에서 천신을 제사하는 신궁을 건립하고 제사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왕조가 박혁거세를 천신으로 보고 제사했다는 것이 된다. 즉 신라왕조는 신궁의례를 통해 박혁거세를 매개로, 천신과의 혈연관계를 확인하고 있었던 것이다.

천신을 신궁의 제신으로 해서 제사하고 있던 신라왕조라면 스스로 천신과의 혈연을 부정하는 시조신화를 가질 까닭이 없다. 시조를 천과 유리시켜 이야기하기 보다는 천과의 혈연을 강조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삼국사기』가 천과 무관한 시조신화를 전하고 있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그것은 왕조의 제사를 종합적으로 설명한 기록을 통해서 생각해 볼 문제다.

제 2대 남해왕 3년에 비로소 시조 박혁거세의 사당을 세우고 사시로 제사하고, (중략) 제 22대 지증왕 때에는 시조 탄강의 땅인 내을에 신궁을 창립하고 제향하였다. 제 36대 혜공왕 때에 이르러 처음으로 5묘의 제를 정하였다. (중략) 제 37대 선덕왕 때에 이르러는 사직단을 세웠으며, 또 그 사전에 나타난 것이 모두 국내의 산천뿐이요. 천신 지지에는 미치지 아니했으니, (그것은) 대개 왕제에 “천자는 7묘요 제후는 5묘니, 2소·2목과 태조의 묘를 합하여 5가 된다”하고 또 (왕제에) “천자는 천·지와 천하의 명산 대천을 제사하되, 제후는 사직과 자기 영지에 있는 명산대천만을 제사한다”하였으므로, 신라는 감

9) 九年 春二月 置神宮於奈乙 奈乙始祖初生地處也(中略) 十七年春正月 王親祀神宮 『三國史記』 3, 新羅本紀3, 炤知麻立干條,

10) 崔光植 「新羅의 神宮 設置에 對한 新考察」 (한국, 『韓國史研究』 43, 1983), P.73.

히 (제후의) 예를 벗어나지 않고 실행한 것인가 한다¹¹⁾.

신라왕조의 제사의례를 개괄한 기록으로 시조묘·신궁·오묘·사직단의 제사를 함께 취급한 것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전술한 대로 시조묘와 신궁의 관계다. 종래는 시조묘에서 신궁으로, 신궁에서 오묘로 변화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시조묘와 신궁이 공존하며 제사되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런 사실을 근거로 시조묘가 오묘제로 신궁이 사직단으로 변화한 것으로 판단한 최광식의 의견은 정곡을 찌르는 것이었다.

그처럼 「시조묘가 오묘제로」, 「신궁이 사직단」으로 변화되었으며, 김부식이 말한 대로 「제후는 사직과 자기 영지에 있는 명산대천만」을 제사하는 것인데, 「신라는 감히 제후의 예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김부식이 칭송한 것은 시조묘나 신궁을 제사한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묘제와 사직단으로 전환된 이후의 제사를 대상으로 해서 해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김부식은 신라를 제후국으로 보고, 신라가 제후국에 어울리게 「천신」을 제사하지 않았던 것을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본 것이다.

김부식은 천신의 제사는 천자만이 제사할 수 있다는 왕제의 전범을 기준으로 해서 신라의 제사제도를 평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 평은 신라가 신궁에서 천신을 제사한 사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김부식은 신라가 신궁을 통해 천신을 제사한 사실은 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던 셈이다. 김부식이 예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천신을 제사하지 않는 제도로 변환 후의 제사를 대상으로 한 이야기였던 것이다.

신궁이 사직단으로 개편되었다는 것은 제신이 천신에서 토지신으로 변환되는 제신의 문제였다. 제신이 천신에서 토지신으로 바뀐다는 것은 제신의 격의 문제이면서 신라왕조의 위상의 문제이기에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김부식의 설명대로 토지신을 제사하는 것도 그 대상이 「국내의 산천뿐이요 천신지신에는 미치지」 못하게 된 것은 제신의 범위가 한정되며 그 격도 하향되었다는 것으로, 그것을 제사하는 왕의 격도 하향되었다는 것을 의미

11) 第二代南解王三年春, 始立始祖朴赫居世墓, 四時祭之, (中略) 第二十二代智証王, 於始祖誕降之地奈乙, 創立神宮以享之, 至第三十六代惠恭王, 始定五廟, (中略) 至第三十七代宣德王, 立社稷壇, 又見於祀典, 皆境內山川, 而不及天地者, 蓋以王制曰, 天子七廟, 諸侯五廟, 二昭二穆與太祖之廟而五, 又曰, 天子祭天地天下名山大川, 諸侯祭社稷, 名山大川之在其地者, 是故, 不敢越禮而行之者歟(『三國史記』卷第三十二 雜志第一 祭祀).

한다.

김부식이 왕제에 의거하여 신라의 제사를 제후의 의례로 보려 한 것은 중국의 제도를 중시하여 신라를 그 질서에 위치시키는 일로, 신라는 제후국으로 한정되게 된다¹²⁾. 그렇게 제후국의 의례로 한정되게 되면 신라의 독자성도 한정되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제도가 전환된 이후에 해당하는 일로, 천신을 제신으로 하는 신궁을 제사하고 있었던 그 이전과는 무관한 일이다. 따라서 『삼국사기』의 박혁거세 신화는 제도의 개변이 있는 후의 제신에 맞추어서 기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천신을 제사하지 못하게 된 시대, 신라의 군주가 제후로 취급되는 시대의 실정을 반영하여 기록한 것이 박혁거세 신화인 것이다. 김부식이 천신을 제신으로 하는 초기가 아니라, 국내의 산천만을 제신으로 하는 시대의 제사에 중점을 두고 시조신화를 기록했다면, 그것에서 천과의 관계가 생략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신궁의 기록은 소지왕과 지증왕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천신의 제사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실행되던 것을 정립하고 신궁도 건립한 것이 그때였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소지왕의 「내을에 신궁을 지으니」와 「지증왕 때에는 시조 탄강의 땅인 내을에 신궁을 창립하고 제향하였다」처럼 유사한 내용이어서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사상적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소지왕대의 기록과 제도적으로 완성된 지증왕대의 기록으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는 일이다. 즉 신궁이 소지왕대 처음으로 설치되고 천사까지 행했으나 아직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못하다가 지증왕대부터 비로소 제도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¹³⁾. 이는 동시대의 고구려와 백제가 천신을 제사했다는 사실이나 천신·지신·조상신이 고대 신앙의 주요 제신이었던 사실과도 부합된다.

신궁이 박혁거세의 탄강지 내을에 창립되었다는 사실은 박혁거세가 천과 무관한 존재가 아니라 혈연적인 관계라는 것, 그의 출처가 내을로 하강할 수 있는 높은 곳, 즉 천이었다는 것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조탄강지내을」의 「탄강」은 박혁거세가 강세한 사실의 표현이고, 「탄강지내을」 「내을」이라는 것은, 박혁거세가 건국하기 위해 강세한 지점이 「내을」

12) 「왕제」의 규정은, 중국의 천하사상에 의한 구별로, 그 사상에서는 제후국으로 취급되는 신라의 독자성이 인정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제사제도가 개변된 이후라는 한계가 있어, 그 이전은 그 한계와 무관하게, 천신의 제사가 이루어졌고, 그것을 반영한 것이 신궁의 기록인 것이다.

13) 崔光植 「新羅의 神宮 設置에 대한 新考察」(한국, 『韓國史研究』 43, 1983), P.64.

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강탄」은 천자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⁴⁾. 「강탄」에는 귀인이나 비범한 사람이 태어났다는 의미도 있다. 그러나 「강」에는 위에서 아래로의 이동한다는 의미, 「탄」에는 태어난다는 의미가 있고, 신화의 일반적인 출생이 천지신의 신혼을 원인으로 하고, 천제와의 혈연을 보장해준다는 사실 등을 생각하면, 이곳의 「탄강」은 천에서 난생한 박혁거세가 강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이다.

『삼국사기』가 말하는 박혁거세의 출생지는, 「나정 곁에 있는 숲 사이를 바라본 즉, 말이 무릎을 꿇고 울고 있으므로 가보니 말은 간 데 없고, 다만 있는 것은 큰 알 뿐이었다」, 「내울에 신궁을 지으니, 내울은 시조가 처음 탄생한 곳이었다」, 「시조 탄강지의 땅인 내울」 등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곳의 「내울」과 「나정」은 동지라는 것이 통설이다¹⁵⁾. 바로 그곳, 박혁거세가 탄강한 곳에 신궁을 세우고 제사했다는 것은, 신라가 박혁거세를 천신으로 인식하고 제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추정하기에 충분한 내용이다.

(2) 국호와 왕호

왕제의 규범에 따라 신라를 제후국으로 보는 것은, 신라를 중국의 질서에 편제시키는 것으로, 그것은 신라의 독자적 천하관의 확인으로 와해될 수밖에 없는 인식이다. 신라의 지증왕은 신궁의 창립만이 아니라, 국호를 신라로 정하고 왕호를 사용하였으며, 사방에 우역을 설치하고 동경과 소경을 설치하는 등 여러 제도를 정비하였는데, 이는 독자적인 천하사상을 구축했기에 가능했던 일로, 제도적 통치는 그 사상의 실현으로 보아야 할 일이다. 신라는 시조와 천과의 혈연을 근거로 자국을 천하의 중심으로 여기고, 그것에 부합하는 국호와 군주호의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그것은 그것을 제정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군신이 말하기를, “시조께서 창업한 이래로 국명이 일정치 아니하여 혹은 사라라고 하고 혹은 사로라 하고 혹은 신라라 하였으나, 신들은 생각건대 ‘신’은 덕업이 날로 새로운 뜻이요, ‘라’는 사방을 망라한다는 뜻이므로, 그것으로

14) 誕, 天子生日 降誕(『玉篇』)

15) 梁柱東「郷歌の理解, 특히 願往生歌에 대하여」(한국, 『靑丘學叢』 19, 1935), P.16. 李丙燾『三國史記』卷第3 新羅本紀 第3(乙酉文化社, 한국, 1996), P.77.

국호를 삼는 것이 좋을 듯하오며, 또 생각건대 자고로 국가를 가진 이가 다 제왕이라 칭하였는데 우리 시조가 건국한 지 지금 제 22대에 이르도록 단지 방언으로 칭하여 존호를 정하지 아니하였으니 지금 군신은 한 뜻으로 삼가 신라 국왕이란 존호를 올리옵니다”고 하니, 왕이 거기에 쫓았다¹⁶⁾.

원래 사라(斯羅) 사로(斯盧) 신라 등으로 불리고 있었던 것을 지증왕 4년에 신라를 국호로 확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신은 덕업이 날로 새로운 뜻이요, 라는 사방을 망라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신라의 독자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덕업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신」이고 사방을 망라하는 것이 「라」라는 것은, 축적된 덕업을 새로 정리하여 사방을 망라한다는 것으로, 신라를 중심으로 하는 천하의 질서를 정리하고 실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설명이었다. 「사방」과 「천하」가 동의어라, 「사방을 망라한다」는 것은 「천하를 망라한다」는 것으로, 천하의 주재자만이 가질 수 있는 사고이다.

원래 「천」이나 「천하」 관념이 성립하기 전까지는 다른 용어가 사용되고 있었다. 주대의 금석문에는 천하와 대체 가능한 「사방(四方·四旁)」이, 은(殷)의 정령(政令)과 관계를 갖는 독자의 여러 외방(外方)을 의미했다. 아베타쯔오(安部健夫)에 의하면, 「사방계」와 「천하계」는 서로 배척하는 관계였다. 즉, 그것이 보이는 상호간의 배타적인 대체관계의 대부분의 원인은 명료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보다 오래되어 반은 서주적(西周的)이고 반은 춘추적(春秋的)인 『시경』의 본문에는 대부분이 「사방계」다. 그리고 보다 새로운 전국시대 이후적인 시서(詩序)에는 대부분이 「천하계」만이 사용되었다. 바꾸어 말하자면 서주에서 동주의 초기에 걸쳐서는 「사방계」만이 있고 아직 「천하계」는 없었다. 그 후에 천하의 개념이 발생하자, 그것은 급속히 「사방계」를 그 자리에서 밀어내고 그것을 대신하게 된 것이다¹⁷⁾.

이처럼 「천하」의 동의어인 「사방」을 「라」자에 포함시켜 「신라」라는 국호를 제정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 이전부터 자국을 천하의 중심으로 여기는, 독자적인 사상을 구축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그럴만한 국력도

16) 羣臣上言, 始祖創業已來, 國名未定, 或稱斯羅, 或稱斯盧, 或言新羅, 臣等以為, 新者德業日新. 羅者網羅四方之義, 則其為國號宜矣, 又觀自古有國家者, 皆稱帝王, 自我始祖立國, 至今二十二世, 但稱方言, 未定尊號, 今羣臣一意, 謹上號新羅國, 王從之(『三國史記』第4, 智証王 4 年條).

17) 졸론 「동아시아의 천하사상」(한국, 『日語日文學研究』 제41집, 2002,5), P.256.

축적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능력 없이는 그러한 의미의 국호제정은 불가능하기 마련이다. 특히 「덕업이 날로 새로」 위진다는 의미의 「신」자는 그 모든 것이 갑자기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존재해 오던 가치관을 새로 정립했다는 것으로, 왕조의 전통성까지도 보장한다.

그 전통적 덕업의 근원은 왕조가 시조묘나 신궁 등을 제사했다는 사실에서 시조를 추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시조를 매개로 하여 왕조의 덕업을 천신의 그것과 동일화시켜 신성성과 절대성을 동시에 확보하게 된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시조와 천과의 관계인데, 그것이 천제와의 혈연을 의미하는 것인지, 단지 천신과의 혈연을 의미하는 것인가이다. 확정하기는 어려우나, 고구려의 해모수가 천제의 아들(天帝子 解慕瀨)이라면, 박혁거세도 그 보다 격이 낮을 수는 없다. 신라도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천제를 조상신으로 하고, 그것을 논리로 하는 천하사상을 구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호가 신라로 확정되기 이전에도 신라는 사로와 더불어 사용되고 있었는데 국호로 확정된 그것은 진한연맹체가 사로국을 중심으로 재편된, 여러 정치세력이 포괄된 대외적 용도의 국호였다. 반면에 사로는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좁은 범위의 정치세력으로서 이른바 원신라를 지칭하는 것으로, 신라 내부의 다양한 지역의 정치세력을 분별하는 기능을 했다. 즉 신라의 중심에 위치하는 핵심을 자처하며 여타세력과 구별하려 했던 것인데, 이것은 화이사상의 실현으로 볼 수 있는 자타의 구별이었다. 또 신라라는 국호의 사용은 새로 포섭된 제 세력들에 대한 동일체 의식을 가지려는 의지의 표명이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피 복속 세력들과의 적대의식을 해소하려 했는데¹⁸⁾, 그것은 왕화사상의 실현으로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신라의 천하사상은 통치를 통해 실현되는데, 「사방에 수역(陞馭)을 두고 소사에 명하여 관도를 수리케 하」여¹⁹⁾ 공문을 체전(遞傳)하고 공용의 마필을 공급한 것 등이 그 좋은 예다. 중앙과 지방의 연결을 위해 설치한 것이 수역이고, 왕경과 지방을 연결하는 공식적인 도로가 관도인데²⁰⁾, 이러한 연결은 중앙의 질서가 사방에 미쳐, 지방이 중앙에 포섭되어, 동일 질서로

18) 朱甫暉 「新羅国号의 確定과 民意識의 成長」 (한국, 『新羅 地方統治体制의 整備過程과 村落』, 신서원, 1998), P.322.

19) 三月, 始置四方陞馭, 命所司修理官道(『三國史記』 昭知王智9年條),

20) 朱甫暉 「麻立干時代 新羅의 地方統治」 (한국, 『新羅 地方統治体制의 整備過程과 村落』, 신서원, 1998), P.63.

지배되는, 즉 천하사상이 실현되는 현실의 반영으로 볼 수 있는 일이다.

또 천하와 동의어인 「사방」을 「망라사방」이나 「사방군주」의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도²¹⁾, 독자적인 천하를 의식하고 있었다는 현실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원래 「사방」이 「도」와 연결되면 그 도로가 통하는 세계나 도로 끝에 존재하는 지역이 도로의 시발점에 위치하는 왕조에 복속되는 것이 된다. 신라가 사방에 수역을 설치하고 그 도로를 관할하는 자를 두었다는 사실은 이런 의미에서 받아들여져야 할 일이었다.

사방이 의미하는 천하의 실현은 고구려의 「모두루묘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곳에는 천손이 「천하사방」을 다스렸기 때문에(知此国), 그 국도 「북부여」가 가장 성스럽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곳의 「북」은 「천하사방」을 상징하는 방위로 인식된다. 「모두루묘지」는 「천하사방」과 더불어 「북」·「도(道)」 등의 문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四)」가 「북」과 연계해서 「동서남북」의 「사방」이라는 방위를 의미하고, 또 「북」과 「도」는 서로 연계해서, 중앙에서 사방으로 확산되는 천하의 위세, 또 각지에서 중앙으로 모여드는 국세를 의미하고 있다. 이처럼 사방의 중심을 국도로 보는 사고는 곧 그 왕조를 천하의 중심으로 여기는 사고를 바탕으로 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사방에 설치한 수역을 통하여 신라 중심의 천하를 추정하는 일은 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또 신라는 소경이나 동시 등을 설치하고 군주를 임명하는 군현제를 실시하고, 육부 및 거주민들을 이주시키기도 하였다²²⁾. 그 소경의 경우는 수도의 편재성을 보완하기 위해 설치했다는 설, 가야·백제·고구려 수령통치의 거점으로 설치했다는 설, 피정복민을 사민시키는²³⁾ 정책의 일환으로 설치되었다는 설 등이 제기되었다²⁴⁾. 이인철은 이를 종합하여 「수도의 편재성을 보완하고 새로운 점령지 특히 고구려 백제 가야 구령 통치의 거점을 마련함으로써 지방통치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²⁵⁾이라 했다. 신라가 수도의

21) 『三国史記』4 新羅本紀, 炤知麻立干 4년조. 「真興王昌寧拓境碑」.

22) 十五年, 春正月, 置小京於阿尸村. 秋七月, 徙六部及南地人戶充夷之(『三国史記』智証王条)

23) 영역의 확장이 이질적 세력간의 충돌을 내포하게 된다.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거주지를 바꾸어 지서에 적응시키는 방법으로 실행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사민이다.

24) 藤田亮策 「新羅九州五京攷」(일본, 『朝鮮學報』5, 1953),P.108. 韓祐勳 「古代國家成長과정에 있어서의 對服屬民施策(上)」(『歷史學報』12, 한국, 1960),P.114. 林炳泰 「新羅小京考」(한국, 『歷史學報』35·36合,1967),P.108.

25) 李仁哲 「新羅中古期の 地方統治体系」(한국, 『新羅政治制度研究史』, 一志社),P.188.

편재성을 느꼈다는 것은 통치 영역의 확장과 더불어 그것에 부합하는 제도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마치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이 전국적 규모로 실현한 중앙집권적 군주제를 통해 인민의 개별적 지배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군현제를 시행하고, 그 운영의 방법으로 관료제를 채용한 것과²⁶⁾ 같은 일이었을 것이다.

신라가 군주의 호칭을 왕으로 제정하기 이전에는 이사금(尼師今) 마립간(麻立干) 등의 호칭을 사용해 왔는데, 자고로 군주를 「제왕」으로 칭하는 관례에 따라 신라를 국호로 정하고 군주의 칭호도 「왕」으로 정했다는 것은 「사방을 망라한다」는 「천하」로서의 「사방」을 의식하고, 그에 부합하는 칭호를 필요로 했다는 것이 된다. 특히 군주를 「제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에 그 독자적인 천하관이 잘 나타나있다.

원래 「제」란 상제로, 그것은 인격을 갖지 않는 절대신으로, 우주만물의 총괄자였다. 이런 의미의 「제」자의 용법은 주대 이후로 계속해서 존속하는 것인데, 그것과 더불어 「제」를 인격신의 칭호로 하는 일이 생겨났다. 그것은 선왕, 특히 시조신을 배천 제사하는 것에서 기인한다. 시조신이 「제」로 불리자, 제곡(帝嚳)·제요(帝堯)·제순(帝舜)처럼 전설상의 상고의 성왕이 제호로 불리게 되고, 그것이 전국시대의 오행사상에 의해 오제설화로 체계화된 것이다. 이리하여 「제」는 비인격신으로서의 상제만이 아니라 인격을 갖춘 성왕의 칭호로도 사용되게 되었다²⁷⁾.

이처럼 상제 또는 고대의 성왕만이 아니라, 현세의 군주의 칭호로도 사용되는 것이 「제」이다. 따라서 「제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군주의 권위가 그 왕국을 초월하여 타국에 까지 미치게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군주 「제왕」에 비견하여 「왕」을 군주호로 정한 것이 신라였다. 그것이 독자적인 천하관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은 진시황의 군호제정을 통해서도 추정해 볼 수 있는 일이다.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자 제신들은,

지금, 폐하는 의병을 일으켜 인민을 헤치는 자들을 토벌하고, 천하를 평정하여 해내(海內)를 군현으로 하고, 법령은 하나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상고 이래 미증유의 일로, 오제가 미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신들은 삼가 박사와 논의하여, - 옛날, 천황(天皇)이 있고, 지황(地皇)이 있고, 태황(太皇)이

26) 西嶋定生 「황제지배의 성립」 (『중국고대국가와 동아시아 세계』, 일본, 동경대학출판회, 1983), P.60.

27) 전계주 26, P. 56.

있었으나, 태황이 가장 존귀했다. 신들은 세삼 존호를 바치겠습니다. 즉 왕을 태황으로 칭하고, 왕명을 제(制)로 칭하고, 왕령을 조(詔)로 칭하고, 천자는 짐(朕)으로 자칭할 것을-결론지었습니다 28).

라고 올렸다. 그러나 진시황은 그 어느 것도 사용하지 않고, 태황의 「태를 버리고 황을 붙여, 상고의 제위의 호를 취하여, 칭호를 황제로 하겠다」며 새로운 왕호를 정하였다. 천하를 통일하고 통치에 임하여, 새로운 칭호를 필요로 했던 것이다. 신라가 국호와 왕호를 새롭게 개정하는 의미도 그것과 같은 취지에서 구해야 할 일이다. 신라는 이미 구축한 천하사상에 입각하여 적합한 국호와 왕호를 새로 제정했던 것이다.

제도의 정비가 지증왕을 전후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은 그러한 사상이 지증왕대에 처음으로 발현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이전부터 존재하는 것을 정리한 것이다. 신라는 인접국과 경쟁하며 국력의 신장에 노력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정당화시켜주는 논리가 독자적 천하관이였다. 신라는 지리적으로도 서방의 백제, 남방의 가야, 북방의 고구려, 동방의 왜와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국을 중심에 위치시키는 천하의 실현을 궁극의 목적으로 했었기 마련이었다. 그런 면에서도 천과의 혈연을 확인할 수 있는 신화는 필요했었기 마련이다.

4 신라의 사방의식

지리적으로도 신라의 사방에는 적대적인 세력이 존재하여 부단한 경쟁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것은 주로 전쟁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국가의 존망과 직결되는 일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독자적인 천하관은 국가의 존재가치와 직결된다. 그것을 확보하고 있을 때, 존망을 전제로 하는 인접국과의 교류에 자신 있게 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신라의 천하상을 동서남북 사방에 위치하는 인접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확인해보기로 한다.

(1) 서방

신라와 가장 긴밀한 관계를 가진 나라는 서방에 있는 백제였다. 『삼국사기』가 전하는 1~3세기간의 내용 중에서 대백제 기사 대부분은 충돌사

28) 野口定男外 三人 『史記』秦始皇本紀 제6(平凡社, 일본, 1978)

고를 내용으로 한다. 그런 기사 중에는 「변한이 나라를 들어 와서 항복하였다」, 「마한의 장수 맹소가 복암성을 바치며 신라에 항복하였다」와 같은 표현들도 있다²⁹⁾. 그곳의 「항(降)」·「내항(來降)」 등은 「나라를 들어 와서」·「성을 바치며」·「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등으로 해석되며, 동조자를 동반하여 귀순한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전쟁에 패하여 어쩔 수 없어 항복한 것이 아니라 신라의 은덕에 감화되어 귀순한 것으로 인식할 수도 있는 표현이다.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의 기록으로만 볼 수도 없는 일이다.

골별국왕 아음부가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항복하자 저택과 전장을 주어 안거케 하고 그곳을 군으로 삼는 것과 같은 것도 마찬가지다³⁰⁾. 이는 귀순해온 세력에 베푸는 왕은으로 주변세력을 감화시키는 왕화사상의 실현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전후처리를 왕은의 시혜처럼 기술하는 것으로 자국 중심의 천하관을 실현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는 객관적 사실의 반영이라기보다는 관념에 의한 기록으로 보아야 할 일이다. 자국을 중심으로 하는 관념에 기저하는 기록으로 독자적인 천하를 실현하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2) 남방

신라의 남방교류는 가야가 주를 이루는데, 그것은 밀양-김해-양천-함안-사천 일대로 향하는 남강 이남으로의 진출과 창영-초계-협천-거창 일대로 뻗어가는 남강 이북과 낙동강 이서를 연결하는 방향으로의 진출이었다. 그것은 가야의 연합을 저지하고 해안을 따라 경주지방으로 진출하려는 가야의 의도를 저지하며 이루어지는 일이었다³¹⁾.

가야는 진흥왕 23년(562)에 복속 당하게 된다. 것처럼 결과적으로 복속하는 세력이라 그런지 가야와의 교류에는 투쟁의 내용이 많다. 결과적으로 복속되는 가야를 강하게 인식시켜 그것을 정복한 자국의 절대성과 왕은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가야가 강력함을 「백제를 이웃하고 남으로 가야를 접하였으며 덕은 능

29) 春正月, 弁韓以國來降(朴赫居世19年). 馬韓將孟召, 以覆巖城降(『三國史記』卷第 脫解尼師今 5年).

30) 骨伐國王阿音夫, 率衆來降, 賜第宅 田莊安之, 以其地為郡(『三國史記』卷第2 助賁尼師今7年2月).

31) 申滢植 「新羅君主考」(한국, 『白山學報』 제19号, 2000년 4월 3일, P.202.

히 인민을 편안케 못하고」³²⁾라고 파사왕의 부덕과 더불어 이야기 하고 있으나, 그 강력함은 신라의 절대성을 반증하는 방법이었다. 어차피 복속될 세력이기에 강력하면 할수록 그것을 복속시킨 신라의 절대성만이 강조되게 된다. 신라왕의 부덕함을 한탄하는 것 또한, 예를 알지 못하는 가야와 신라를 구별하여 예의를 바탕으로 하는 신라왕의 은덕을 강조하는 방법이었다. 은덕으로 감화시켜 주변세력을 복속시킨다는 왕화사상의 강조였던 것이다. 결국에는 가야가 복속하는 것으로 그것은 확인되게 된다.

신라의 왕은 용서하는 것과 같은 자비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신라왕은 가야를 치러다가도 가야가 사신을 보내 죄를 청하자 그만 두기도 하고³³⁾, 위기의 가야가 구원을 요청하면 그에 응하여 포획한 포로를 가야에게 돌려 주기도 한다³⁴⁾. 그것이 왕은이고 종주국의 왕이 취할 자세이다. 주변국과 대등한 것이 아니라 보다 고차원에서 대응하는 자세인 것이다.

위기에 처한 가라가 왕자를 보내어 구원을 청하자 신라는 태자에게 명하여 구원하게 한 일이 있었다³⁵⁾. 그때 가야의 「왕자」에 신라의 「태자」를 대응시켜 칭호를 가지고 구별하였는데 이것이야말로 칭호로 자타를 차별하여 구별하는 화이사상의 의도된 표현이다.

(3) 북방

북방으로는 고구려를 비롯한 예(濊), 말갈(靺鞨) 낙랑(樂浪) 등과 대립하고 있었다. 그것은 내륙지방과 동해안을 축으로 하는 진출활동이었다. 그 중에는 이계에서 신라로 진입해오는 내용, 북방세력이 조공하는 내용, 확장된 세계의 질서를 개편하는 내용 등이 있어, 그것을 통하여 신라의 독자적인 천하상을 확인할 수 있다. 외부 세력이 진입해오거나 내항한다는 것, 주변국이 토지나 인민을 현상한다는 것 등은 주변국이 신라의 은덕에 감화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으로 주변국이 왕화 되어 신라의 질서 속에 포섭된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나 그것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해도 신라의 관념만으로도 설정할 수도 있는 일이다. 상대의 합의 없이 자국의 필요

32) 西隣百濟, 南接加耶, 德不能綏(『三國史記』卷第1 婆娑尼師今8년).

33) 拳兵, 欲伐加耶, 其國主遣使請罪, 乃止(『三國史記』卷第1 婆娑尼師今8년).

34) 浦上八國王, 謀侵加羅, 加羅王子來請救, 王命太子于老, 與伊伐漁利音, 將六部兵, 往救之, 擊殺八國將軍, 奪所虜六千人, 還之(『三國史記』卷第2 奈解尼師今14년).

35) 浦上八國王, 謀侵加羅, 加羅王子來請救, 王命太子于老, 與伊伐漁利音, 將六部兵, 往救之, 擊殺八國將軍, 奪所虜六千人, 還之(『三國史記』卷第2 奈解尼師今14년 7월).

와 관념으로 상정한 상황일 수도 있다. 그런 관념에서는 영토의 확장은 천하사상이 실현된 결과로 인식할 수도 있는 일이다.

혁거세대에는 중국인이 난을 피해 동래해 오고, 유리대에는 낙랑인이 투항해 오고, 파사대에는 음집벌국주와 실직·압독의 두 국왕이 항복해오고, 조분대에는 골벌국왕이 무리를 이끌고 내항하고, 기림대에는 낙랑과 대방 등이 귀복해 왔다. 이처럼 많은 세력들이 다양한 형태로 귀복해 오는 것은 왕은에 감복해서 일어나는 일로, 신라를 천하의 중심으로 여기기에 충분한 일들이다.

특히 동옥저의 사자가 신라(南韓)에 성인이 난 것을 알고 말을 현상했다는 것과 같은 내용의 기록은 신라를 서상지로 여기는 직접적인 표현이다. 이처럼 신라를 서상지로 보는 것은, 신라를 천하의 중심으로 여기는 사상인데, 혁거세대에 동옥저가 말 20필을 바친(獻) 사실, 남해대에 북명인이 세왕인(歲王印)을 바친 사실, 유리대에 맥국인이 금수를, 고타군주가 청우를 바친 사실, 조분대에 고타군이 가화를 바친 사실 등도 마찬가지다.

신라는 이처럼 전입해온 세력에게 저택과 전장을 주어 안거시키기도 하는데, 그것이 왕은으로 왕화를 실현하는 일로, 마치 주변국의 조공에 책봉으로 대응하는 관계를 연상할 수 있는 대처였다.

(4) 동방

동방에는 석탈해의 다파라국과 왜가 존재하나 다파라국은 석탈해의 출생지로 이야기 될 뿐 다시 등장하는 일이 없다. 따라서 왜가 유일한 세력이었다. 훗날 우산국이 신라에 의해 정벌되는 것으로 보아, 신라와 다른 세력으로 우산국이 존재했겠으나, 일단은 왜를 동방의 대표세력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 왜에 대해 신라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이었다. 신라의 동방 정책은 순행과 왜와의 교류가 주를 이루는데 그 모든 것은 신라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진다. 왜와의 관계는 교빙·내빙과 같은 교류나 혼인과 같은 것이었음에도 그것들의 대부분은 왜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한 것들이었다.

왜는 건국 초부터 도해했는데 그것은 「왜인침(倭人侵)」 「왜인견병(倭人遣兵)」, 「왜인침경(倭人侵境)」, 「왜인졸지위(倭人猝至圉)」, 「왜병구(倭兵寇)」, 「왜인습(倭人襲)」, 「왜병공함(倭兵攻陷)」, 「왜병래공(倭兵來攻)」, 「왜병졸지(倭兵猝至)」 등으로 표현되는 것들이었다. 그것은 왜의 노략(掠)·공격(圍金城)·방화(縱火燒之)·포로(虜人)·공함(攻陷)·초략(抄掠) 등으로 기록되었듯이, 왜의 만행에 신라가 대응하는 형식의 교류로, 신라가 왜

를 영역 외로 격퇴하는 것으로 종결된다.

상호교류로 생각할 수도 있는 교빙이나 내빙도 역시 왜가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교류의 전후에도 왜의 침략이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이 호의적인 내용의 것은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왜의 교빙이나 내빙은 침략의 전초전으로, 침략의 구실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 지나지 않았던 것 같다. 왜는 내빙이나 교빙을 통하여 목적을 이루려다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침략하고 있었던 것이다.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왜국이 사신을 보내어 아들의 혼인을 청하므로 아찬 급리의 딸을 보냈다(흠해니사금 3년).

왜국이 사신을 보내어 혼인을 청하였으나, 앞서 여자의 출가를 이유로 사절하였다(흠해니사금 35년 2월).

왜왕이 글을 보내어 절교하였다(흠해니사금 36년 2월).

왜병이 갑자기 풍도에 이르러 변호를 초략하고 또 금성을 진위하여 급히 치므로 (흠해니사금 37년) 36).

왜와의 교빙·교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를 잘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왜는 혼인과 같은 교류를 원하다 그것이 거절되면(걸해 35년), 왜는 절교하는 서신을 보내고(걸해 36년), 침략해 왔다(걸해 37년). 어떤 요구를 하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침략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신라의 왜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이었다. 신라는 왜를 자국의 세계에 포함하려는 의사를 보이지 않는다. 그것이 신라가 왜에 임하는 기본적인 자세였다.

(5) 동방으로서의 우산국

신라가 왜를 자국의 영역에 포함하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아, 왜가 존재하는 동방이 신라의 사방에서 결락되게 된 셈이다. 이것은 사방의 중심임을 확인하려는 신라에 있어서 내용상의 문제보다도 형식상 큰 문제일 수 있다. 자국을 사방의 세력이 집결해오는 서상지, 사방에서 주변국들이 귀복해오는 천하의 중심임을 확인하려는 의도에 차질이 생기게 된 것이다. 자

36) 倭國王遣使，為子求婚，以阿滄急利女送之(『三國史記』卷第2 訖解尼師今 3년). 倭國遣使請婚，辭以女既出嫁(『三國史記』訖解尼師今 35년 2월). 倭王移書絕交(『三國史記』訖解尼師今 36년 2월). 倭兵猝至風島，抄掠邊戶，又進圍金城，急攻(『三國史記』『三國史記』卷第2 訖解尼師今 37년).

국을 천하의 중심으로 여기는 것은 사실과 관계없이 관념만으로도 충분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신라는 동방에 있는 왜를 천하를 구성하는 주변국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할 다른 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우산국 정벌이었다. 우산국을 귀복시켜 결락된 동방을 구비해야 했던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갖는 우산국의 정벌이었다. 신라는 우산국으로 동방을 구비하여 천하를 완성한 셈이다. 따라서 우산국 정벌은 단순한 영역의 확장이 아니라 천하의 완성이라는데 의미를 두어야 하는 문제였다.

지증왕은 주군현을 정하고 실직주를 두고 이사부를 군주(軍主)로 삼았다. 군주제를 정립하고 실시하며 이사부를 군주로 임명했는데, 그가 우산국을 정벌한 것이다³⁷⁾. 점령지의 확일적 지배나 왕권과 지방 세력과의 연결에 따른 통일적인 통제를 위해서 왕의 측근자를 외관으로 파견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것에 의해 이사부가 군주로 임명되었고, 그가 우산국을 정벌했다는 것이다.

우산국을 정벌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확실치 않으나, 다른 곳의 정토보다 쉬운 일은 아니었다. 기록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듯이, 100리나 떨어진 해상 of 천험한 곳에 위치한 것이 우산국이라, 간단히 복속시키기 어려운 대상이었다. 그렇다 해서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곳도 아니었다. 그런 이유라면 인접한 서·남·북향을 정토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신라는 우산국의 정벌을 감행한 것이다. 그 정벌이 경제적 실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역시 천하관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당시의 신라가 여러 제도를 재정비하는 등 독자적인 세계관의 실현을 시도하고 있었다는 것과 우산국의 정벌을 같이 생각하면 역시 그것은 세계관의 문제, 자국을 천하의 중심으로 여기고 그것을 확인하는 일련의 통치행위로 보아야 한다. 주군현을 정하고 이사부를 군주로 임명한 것은 천하관의 실현으로, 정벌은 실현되는 천하관의 확인이었고, 우산국의 복속은 천하의 완성이었던 셈이다. 말하자면 우산국의 정벌을 통하여 자국의 독자적인 천하관을 실현하면서 그 천하상을 완성한 것이다.

37) 于山国帰服，歲以土宜為貢，于山国，在溟州正東海島 或名鬱陵島，地方一百里，特嶮不服，伊滄異斯夫為何瑟羅州軍主。為于山人愚悍，難以威來，可以計服，乃多造木偶獅子，分載戰船，抵其国海岸，誑告曰，如若不服，則放此猛獸踏殺之，国人恐懼則降 『三國史記』卷第 智証麻立干 十三年 夏六月).

5 결론

『삼국사기』의 박혁거세 신화는 천과 무관하다. 그것은 박혁거세 신화만이 아니라, 신라신화로 일컬어지는 조선유민·석탈해·김알지 등의 신화도 마찬가지다. 박혁거세의 경우는 양산의 나정에 알로 나타났을 뿐으로, 그 출처를 알 수 없다. 알과 같이 나타난 말의 출처도 불명하여 박혁거세와 천과의 연관은 확인되지 않는다. 고구려 신화나 『삼국유사』의 박혁거세가 천과 연계되어 이야기된 것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신라를 건국한 시조신화에 천과의 혈연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것은 왕조가 천하사상을 소유하지 못했거나 부정한 결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신라왕조가 천신을 제신으로 하는 신궁을 건설하고 제사한 사실이나, 초기의 왕위가 자연적인 천재지변·괴이 등에 좌우되었다는 사실, 현실의 상황을 천지간의 관념적 사고를 통해서 파악하기 위해 하늘의 변화(천재지변)와 인간의 활동(정치 외교전쟁)을 연관시켜 보았다는 사실 등을 생각하면, 신라를 천하사상과 무관한 왕조로 보기는 어렵다³⁸⁾. 따라서 처음부터 그런 내용이 없었다기보다는 생략된 가능성에서 볼 문제다. 그럴 경우 『삼국사기』가 신라가 아닌 고려인에 의해 편찬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감안해야 한다.

신화와는 달리 사실적 기록은 천재지변과 현실을 연계시켜 이야기하고 있다. 왕이 천재지변 여하에 따라 교체되기도 한다. 삼국의 왕위교체(사망)가 천재지변과 직접 관련되는 기록이 많은데, 특히 신라의 경우가 더 심하다. 천재가 지변의 배에 달한다³⁹⁾. 이처럼 천과 연계되는 왕조의 기사가 많다는 것은 신라가 그 만큼 천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천과 무관한 신화 그것은 원상이 아니라, 편집의도에 의해 생략된 것의 가능성을 스스로 시사한다. 편집의도의 한계가 노정된 것이다.

신화로 천과 왕조의 혈연을 확인하는 것은 천손이 천하를 주재하는 정통

38) 군주의 지위는 천이 부여한 것으로, 그 부덕의 정치는 천재지변으로 나타난다는 것으로, 천하의 정치의 모든 책임은 군주에게 있다. 이 군주관은 군주의 권위의 래원을 천에서 구하는 것으로, 군주는 천명을 받아 만민을 다스리기 때문에, 군주는 천에 대해 정치책임을 져야하는 자다(西嶋定生「중국고대국가의 구조」『중국고대국가와 동아시아세계』, 동경대학출판회, P.63)

39) 삼국시대에는 900여회의 천재지변이 있었다. 신라는 322회(통일신라는 262회)였고, 고구려는 153회 백제는 191회로 신라가 가장 많은 기록을 갖고 있다(申澧植『한국고대사의 신연구』, 一潮閣, 한국, 1995, P.75).

성은 물론, 천손이 통치하는 나라를 그 중심에 위치시키게 된다. 그런 면에서 자국이나 왕경을 중심지로 여기는 사고는 천하사상을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신화의 주인공들이 신라로 집결한 것은 신라를 천하의 중심지로 여기는 사상이 실현된 결과로 볼 수 있는 일이다. 시조 박혁거세는 외부에서 전입하여 신라를 건국하게 되었는데, 유입해온 것은 박혁거세만이 아니다. 그 이전부터 존재하던 조선유민도 북방에서 전입해 왔으며, 이후의 석탈해는 동북에서, 김알지는 금성의 서편에서 유입해온 세력이었다. 이처럼 신화의 주인공들이 외부의 전입세력이라는 것은 신라가 모든 세력을 집결하는 서상지이며 세계의 중심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처럼 외부세력이 집결하는 중심지가 신라라는 이야기는 신화만이 아니다. 신화에 대응하는 역사적 기록은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다. 서쪽의 백제, 남쪽의 가야, 북쪽의 고구려에서 전입하거나 북속했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즉 신라는 인접국과의 관계를 자국 중심으로 판단하여, 자국을 중심에 위치시키는 방법으로 천하사상을 실현하려 했던 것이다. 신라가 서쪽에 사벌(沙伐)-감문(甘文)-일선(一善)으로 이어지는 상주(上州)를 설치하고, 남방에는 남강을 경계로 대야주(大耶州)를 설치하고, 북방에는 내륙방면으로 진출함과 동시에 동해안 방면에 실직주(悉直州)를 설치한 것이, 그 현실의 상황으로 확인하는 천하상이었던 것이다.

신라는 사방에 존재하는 나라들과의 투쟁하며 존재하고 있어 자국 중심의 천하관은 필수적이었기 마련이다. 그러한 천하관이 주변국과의 관계를 관념적으로 해석하게 하고, 그것을 실현한 것으로의 기록도 가능했을 것이다. 신화나 역사적 사실의 허구의 필요성이 거기에 있었다. 신화로 관념을 구축하고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목적의 신화가 천과 무관하게 이야기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것은 신라를 제후의 반열에 위치시키는 편집자들의 의도에 의해 생략된 결과로 보아야 한다. 그러면서도 사실적인 기록에는 천과의 관계가 언급되어 있는 것은 편집자들의 의도와는 달리 천과의 관계를 생략하면 기록의 구성이 어려울 정도로 천과 연계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박혁거세와 천과의 관계도 그렇다. 신화에서는 천과의 관계를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제사의례에서는 신궁의 제신이 천신이고 신궁의 건립지가 시조가 탄강한 곳이라는 설명을 통하여 신라가 박혁거세를 천신으로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것처럼 신라가 시조를 천신으로 여기고 제사하고 있었다는 것은 선조를 매개로 하는 천과의 혈연을 의식하고 있었다

는 것이 된다. 즉 신라는 천과의 혈연으로 천하를 주재하는 정통성을 확인하며 그에 부합하게 신라를 국호로 왕을 구주호로 제정한 것이다.

덕업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의미의 「신」과 사방을 망라한다는 의미의 「라」를 취하여 「신라」라는 국호를 정하고, 그 군주를 「왕」으로 정했다는 것은 신라의 왕이 날로 새로워지는 덕업으로 사방을 망라하여 통치한다는 것으로, 신라왕이 통치하는 세계가 천하의 중심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신라가 시조를 매개로해서 천과의 혈연관계를 보장받고 있었기에 가질 수 있는 세계관이었다.

『삼국사기』가 「자고로 국가를 가진 이가 다 제왕이라 칭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모든 나라, 신라와 인접하고 있는 백제나 고구려 가야 등도 자국을 천하의 중심으로 여기는 독자적인 천하관을 구축하고 있었다는 사실의 확인이었다. 또 그것은 모든 나라가 그러한 데 어찌 신라가 예외일 수 있겠는가 라는 자긍심의 강조였다. 비록 그것이 관념적이었다 할지라도 그것 없이는 국가의 통치는 물론, 인접국과의 교류에서의 우위 확보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왕조의 천과의 혈연관계 확인은 필요했다. 그럼에도 신라의 시조신화가 천과 무관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것은 편찬자들에 의한 윤색으로 보아 마땅할 일이다.

신라의 제사가 초기에는 시조묘와 신궁에서 이루어졌으나, 후에는 오묘제와 사직단에서 이루어지며, 국내의 산천만을 제사하고 천신 지지에는 미치지 못했다. 김부식은 그것을 왕제에 의거하여 「감히 예를 벗어나지 않고 실행한 것」으로 보고, 신라가 제후의 예를 취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후기에 이루어진 오묘제와 사직단의 제사에 해당되는 일이지, 천신을 제사한 신궁의 제사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다. 즉 김부식으로 대표되는 편찬자들은 천신을 제사한 초기의 신궁의례보다는 천신을 제사하지 못하게 된 시기의 의례를 중시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신라의 제사와 제신을 단정한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박혁거세 신화를 기술한 것이다.

그러한 제거 활동을 유교의 합리적인 사상에서 구하기도 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유교적으로 보아서 괴란하다 하면 말삭하기를 꺼려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의견도 있으나⁴⁰⁾, 유가들도 위서에 의거하여 그런 것들도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유가들은 타당성으로 우주의 주재자·도의 체현자로서 무제약적·절대적 존재로 여기

40) 崔南善編「三國遺事解題」(한국, 民衆書館, 『三國遺事』, 1975), P.8.

는 군주를 규제하려 했으나, 그렇게 되면 권위의 절대성을 포섭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경서가 아닌 위서를 근거로, 황제의 주술자적 성격과 지배자로서의 절대적 성격을 통일·조정하려 했다⁴¹⁾. 유가들도 군주의 신이성이나 주술성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유가의 이러한 군주론을 근거로 김부식이 신화에서 천과의 관계를 생략한 것을 생각해보면, 편찬자들이 신라왕조의 천과의 혈연을 인정하지 않아 생략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신라를 천자가 주재하는 나라가 아니라 제후의 나라로 보는 천하사상에 의한 결과일 뿐이다.

【参考文献】

김부식저 이병도註 『三國史記』, 乙酉文化社, 한국, 1996년 12월, p77
 一然저 李民樹역 『三國遺事』, 乙酉文化社, 1985년 9월
 서대석 『한국신화의 연구』, 집문당, 2001, 7, p97
 ----- 『韓國古代의 建國神話와 祭儀』, 一潮閣, 1999
 金哲浚 「新羅 上代社會의 dual organization」 上(한국, 『歷史學報』 1, 1952), PP.23-25
 ----- 『新羅 地方統治體制의 整備過程과 村落』, 신서원, 1998
 野口定男外 三人 『史記』 秦始皇本紀 제6, 平凡社, 1978
 西嶋定生 『中國古代國家와 동아시아세계』, 東京大學出版會, p60
 申滢植, 『한국고대사의 신연구』, 一潮閣, 1995, p75

41) 현세를 통치하는 군주의 칭호로서의 황제는 천하를 지배하는 현세 군주로 만물을 주재하는 우주신 상제와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군주가 시행하는 법과 술은 무계약적·절대적인 것으로, 이를 시행하는 군주는 우주의 주재자·도의 체현자로서 무계약적·절대적 존재이다.

그러나 한의 황제는 상제와 합치하는 황제가 아니라, 왕을 우월하는 천하의 군주라는 정도의 위호였다. 유학자 동증서는 그러한 황제와 천자의 관계를 조정하여, 황제란 삼라만상과 통하고 그 덕이 천지와 대등한 존재를 말하는 것으로, 천이 이를 도와 아들로 하기 때문에 천자라고 해석했다. 그것은 황제를 천지의 이법에 따르게 하려는 유가의 현실 타당성과 타협을 통하여 군주를 규제하려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처럼 황제가 천자 사상에 종속되게 되면, 황제가 천명에 종속되고, 천명을 받는 군주로서 덕을 쌓아야 하는 윤리적 요구에 응해야 하는 자로, 황제는 상제와의 관계에서 천자라 해도, 내정에 있어서는 여전히 국사의 주재자이고, 백관을 통솔하고 만민을 다스리는 주권자였다(西嶋定生 『중국고대국가와 동아시아세계』, 동경대학출판회, 일본, 1983. P.75).

要 旨

『三国史記』が語る朴赫居世の神話は天と関わりがないことになっている。それは新羅の天下思想を認めない編集者たちにより省略された結果であると思われる。神話において天との関係が省略されたということは『三国史記』の他記録が示唆している天下像を確認することを通じて確認できることである。

また新羅は東西南北の四方を周辺国と接している環境により、早くから天下思想と同意の四方認識を以て、自国を四方の中心と見做していた。しかし東方に当たる倭との関係を否定し、倭を自国の世界観から除こうとする意図により、結果として四方のうちの東方が欠けることになる。その欠けた東方を備えて四方を完備し、自らが天下の中心国であることを確認する必要性により、于山国を征伐することになる。つまり新羅は于山国を征伐して独自の天下を完成し、実現したのであった。

新羅と天との血縁は神話ではなく、編集者たちが諸侯国と扱いながら記録した祭祀儀礼を通じて確認できる。『三国史記』の記録とは違って、新羅人たちは朴赫居世を天神とみて、祭祀し神話を語っていたのである。

キーワード：神宮、四方、天下、于山国、智証王、郡県制

투 고 : 2006. 8. 31
1차 심사 : 2006. 9. 9
2차 심사 : 2006. 9. 30

住 所 : (305-750) 대전시 유성구 반석동 양지마을 5단지 505동 2202호
電 話 : 042-821-5377
e-mail : kwonoyub@cnu.ac.kr